

들꽃편지 654

2023. 7. 23. 대서  
<https://cyw.pe.kr>

## 연결된 사이버 세상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특정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http://www> 로 시작합니다. <http://> 는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 기기가 서로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든 일종의 규칙입니다. [www](http://www)는 ‘World Wide Web’의 약자이며 세계가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인터넷 세상을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라고 하는데 가상공간(假想空間)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 ‘햇볕같은이야기 <https://cyw.pe.kr>’ 공간에는 예화, 설교, 찬송, 성경.... 등등 21만여편의 글이 가득 차 있고 전 세계에서 하루에 수천명이 드나들며 노는 보이지 않는 가상 세계의 놀이터입니다.

햇볕같은이야기의 물리적인 공간은 분당에 있는 KT동판교빌딩 3층 데이터센터 어느 한 구석에 박혀있는 ‘서버(server)’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서버가 ‘햇볕같은이야기’ 자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가봤자 그냥 컴퓨터 하드가 깜빡거리면서 돌아가고 있을 뿐. 그러므로 햇볕같은이야기의 사이버 공간이라는 실체는 있으면서 없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아주 아주 고도화된 사이버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물리적인 공간도 없고, 눈에 보이는 실체도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인터넷도 <http://>라는 규칙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도 접속할 수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영계는 신계도 있고 마계도 있는데 귀신들은 자기들끼리 접속하는 것을 ‘신접(神接)’이라고 하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영접(靈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접’으로 영계에 접속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긴 장마에 지쳐있는 최용우 올립니다.



□ 느낌



guesthouse\_seoul\_korea "Man is the only creature that consumes without producing. He does not give milk, he does not lay eggs, he is too weak to pull the plough, he cannot run fast enough to catch rabbits. Yet he is lord of all the animals. He sets them to work, he gives back to them the bare minimum that will prevent them from starving, and the rest he keeps for himself." -George Orwell, Animal Farm-

"인간은 생산하지 않고 소비하는 유일한 생물이다. 우유를 주지 않고, 알을 낳지 않으며, 너무 약해서 쟁기를 끌 수 없고, 토끼를 잡을 만큼 빨리 달릴 수 없다. 그러나 그는 모든 동물의 주인이다. 그는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들이 굶어 죽지 않을 최소한의 것을 그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차지한다."  
-조지 오웰, 동물농장-

## 스스로 나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모신다는 종교인들까지  
스스로 나서서  
자기가 최고라고 떠들어대는 것은  
해도 너무하지 않는가?

시양하고 시양하다가  
정말로 마지못해서  
총화장이건 감독이건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을  
내 생전에

하나라도 보게 된다면,  
이 시대를  
목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덜 부끄럽겠건만...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 회개45 너도 그러면서

새벽마다 기침을 종종 하여 옷을 겹겹이 입고 마스크를 쓰고 4시20분쯤 새벽기도 드리러 집을 나섭니다. 어둠을 헤치며 종종 걸음으로 걷다가 또 기침이 나올까 염려하여 목캔디를 하나 포장된 껌질을 벗기고 입에 넣었습니다.

조그만 껌질은 무심코 길 옆 도랑에 던졌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마음의 음성이 크게 들렸습니다.

“너 그러면 못써,”

아파트에서 경비로 일하면서 주민들이 윗층 베란다에서 담배꽂초 사탕껌질 휴지 등등 아래로 던져 버립니다. 심지어는 깨진 유리를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화단으로 혹은 길가로 떨어지고 때로는 사람들이 다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주우며 치울 때마다 속으로 한마디 합니다.

“에이 쌤!”

아파트 주변 외관 청소를 끝나고 돌아서면 또다시 여기서기 담배꽂초가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는 모습을 주님이 보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그러면서 화를 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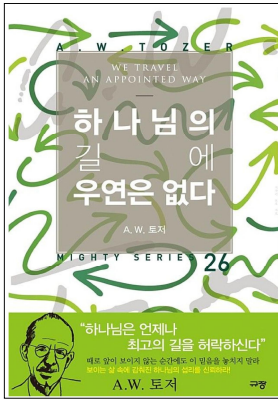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제산 목사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 셤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아저씨 안녕 하세요?”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저, 괜찮은 것 같네요.

#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토저 마이티 시리즈 26  
A.W 토저 지음/이용복 옮김  
192쪽 11,000원 규장 2017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이 믿음을 놓치지 말라.  
보이는 삶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

## 1. 우리는 정해진 길을 간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 그는 정해진 길을 간다. 그 길은 그가 존재하기 전에, 그의 존재가 오직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있었을 때 이미 그를 위해 정해졌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주께서 그의 발걸음을 정해 놓으셨다고 확신 해도 좋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정해 놓으신 시간보다 한 시간 앞서 그가 세상을 떠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 2. 옳은 길은 하나뿐이다.

누구든지 옳은 입장이 되려면 하나님의 편으로 넘어오는 수밖에 없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대답은 ‘하나의 책’이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자신에 대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출20:1)라고 말한다. 이 책의 지식은 어느 편이 옳은지를 보여줄 것이다. 물론 이 책은 성경이다.

## 3. 성령의 증거

성령께서 사람들의 영혼 안에서 은밀히 일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성령의 증거는 설명될 수 없는 ‘거룩한 내적인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될 수 없다. 성령께서 속삭임을 통해 그분의 신비로운 임재를 인간의 마음에 알려주시면, 인간의 마음은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아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안다.

#### 4. 지성의 종교 vs. 성령의 종교

오늘날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 가운데 인간의 지성에 의해 그 전모가 이해될 수 있는 객관적 기독교를 붙드는 사람과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신앙적 체험의 깊은 영역이 따로 있다고 믿는 사람들간의 싸움이다. 후자에 의하면, 이 영역은 깊은 영적인 것이며, 우리의 단순한 이성을 초월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인간의 마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 5. 자기비판은 반드시 필요하다.

영적 삶의 개선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일상생활’이라는 학교와 ‘기도’의 영역에서 자기비판을 얼마나 철저히 실행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생명을 주는 회개의 물’을 그의 뿌리로 끌어들이야 한다. 영적 진보의 길에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그 위험성은 우리가 병적인 내성에 빠져서 우리의 영혼이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행복과 활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 6. 사실과 진리

지식과 진리는 구별되어야 한다.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의 총합이고, 진리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이다. 이는 지식으로 머리를 가득 채워도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할 수 있다. 사실에는 도덕적, 영적 의미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우선적으로 진리에 관심을 갖는다. 특히 ‘육체로 오신 진리이신 분’에게 관심을 갖는다.

#### 7. 진리도 문제를 일으킨다.

진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지만 다른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거짓에 푹 빠져 있는 세상에서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리에 헌신하는 사람은 대중에게 인기를 얻을 수 없다. 빛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확신을 얻어 과거의 두려움과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대중은 그의 확신을 완고함으로 해석한다.

#### 8. 변하는 세상, 변하지 않는 진리

인간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것들은 1세기의 사람들이나 20세기의 우리에게나 완전히 똑같다. 1세기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죄와 죽음의 문제로 고민하고, 평안과 영생을 갈망한다. 두려움 때문에 괴롭고, 패배를 맞보면 충격에 빠지며, 배신당하면 슬프고, 적의(敵意) 때문에 상처받고, 실패하면 의기소침해진다. 압박한 죽음에 공포심을 느끼며, 마귀에게 시달리고, 장차 임할 심판을 생각하면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2천 년 전의 사람들에게 그분이 필요했던 이유와 똑같다. 변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변하지 않는 것도 많아진다.

### 9. 건전한 의심의 눈길이 필요한 때

우리는 성경의 명백한 교훈이 지지하지 않는 모든 것에 '건전한 의심의 눈길'을 던지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를 붙드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다. 그 진리를 벗어난 것을 붙드는 믿음은 불신앙만큼이나 해롭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이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10. 유일한 생명의 책, 성경

성경은 생명의 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요6:6)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성경은 생명을 가져다주는 책이다. 성경은 인간 사고(思考)의 어떤 영역에도 일차적인 관심을 두지 않는다.

### 11.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성경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성경이 우리 안에서 자기의 일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입맞대로 취사선택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

### 12. 조건 없는 기도

신앙적 사고와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담대함이 가장 요구 되는 분야가 바로 기도이다.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때 믿음으로 충만하고 담대함으로 무장해야 한다. 성공적인 기도는 조건 없는 기도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며, 그분이 사랑이시므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실 수 없고 언제나 유익을 주실 수밖에 없다고 믿어야 한다. 이런 자세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을 받지 않을 수 없다.

### 13. 영혼의 친구, 찬송가

성경 다음으로는 찬송가가 중요하다. 주저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의 친구로서 성경 다음으로 좋은 것이 찬송가라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표준적인 찬송가를 그의 성경 옆에 두어야 한다.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면 이 두 권의 책이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고 놀라움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 14.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그리스도

성경은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시편55:22)라고 가르친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짐을 져 주신다면 그 어떤 짐도 다른 짐보다 더 무겁지 않다”라는 에크하르트 교훈과 일치한다. 우리의 짐들을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운다면 분명히 더 오래, 더 훌륭하게, 훨씬 더 행복하게, 그리고 더 유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 짐들이 얼마나 무거운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분이 대신 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 15. 죄인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

그리스도께서는 인자이며 구주로서 잃어버린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신다. 세상을 위한 그분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단 한 순간도 이 땅에 임하지 않는 날이 없을 것이다.

### 16.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참아주어라

우리에게는 불완전한 것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너그럽게 보아줄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 아무리 신령한 교회라 해도 그 교회 안에는 육신의 문제로 여전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우리가 주님처럼 되어 모든 불완전한 것들을 벗어던지는 저 큰 날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꼭 참아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 17. 완전히 아름다우신 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나라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틀림없이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때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세상은 아기 예수의 마지막을 아직 보지 못했다.

### 18.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들은 여럿이지만 그분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오직 하나, 바로 그분

자신이다. 그분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분 자신을 그분의 백성에게 주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신다. 그리스도의 속량이 이룬 최고의 성과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돌려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첫째 목적은 우리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 **19. 바울의 고난이 주는 위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에 처한 그리스도인은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들에서 많은 위로를 얻을 수 있다. 교회를 위해 그는 자신을 희생했고, 그의 적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개의치 않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부러 고난을 자초하지도 말고 고난을 피하려 애쓰지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며 언제라도 고락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 **20. 우리의 형제, 베드로**

베드로는 결점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극복하고 전진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을 때 슬픔의 눈물을 흘렸다.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이처럼 매우 아름다운 보물이다.

### **21. 하찮은 그리스도인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 전까지 아무리 하찮은 존재였다 할지라도, 그가 그분을 만나는 순간부터는 아주 귀중한 존재로 변한다. 주님이 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더 이상 그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는 즉시 특별한 사람이 되며, 우주적 의미를 갖게 된다. 하늘의 천사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를 섬기기 시작한다(히1:14). 전에는 얼굴 없는 허다한 무리 중 한 사람이었고, 우주의 미물이었으며, 바람에 날려 끝없는 불모지를 떠도는 보이지 않는 먼지 한 톨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는 얼굴이 생기고, 이름도 갖게 되었으며, 의미 있는 큰 계획의 한 부분으로 당당히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아신다.

### **22. 낭비가 이끄는 비극의 길**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 각 사람에게 일정량의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은 선물을 값없이 주시지만, 종국에는 그 선물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다. 주신 선물을 낭비하는 일은 인생의 무서운 비극 중 하나이다. 시간, 재능, 재물, 기회는 주변에 흔하지만, 이것을 낭비하는 일은 인생의 무서운 비극 중 하나이다. 낭비의 가장 나쁜 결과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정신적 습관일 것이다. 시간이나 돈이나 재능이 낭비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 특히, 가장 중요한 우리의 내면에 해를 끼치게 된다.

\*정리: 이재익 목사(일본 니가타교회)

## 똥배

내 배는 빵배  
빵을 먹고 빵빵해진 배

내 배는 똥배  
똥이 가득 들어 똥똥해진 배

내 배는 똥배  
얼렁똥땅 똥똥해진 배

최용우 제8시집<일상의 행복>



[덧글]  
완전 자폭시 ㅍㅍㅍ



일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과  
행복을 보여주는 시집

### 일상의 행복

최용우 지음  
210쪽(울컬리) 136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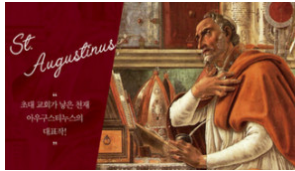


일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과  
기쁨을 보여주는 시집

### 일상의 기쁨

최용우 지음  
210쪽(울컬리) 13400원

## 그리스도교와 플라톤주의 비교



### 254. 플라톤 학파는 참된 신을 섬겼는가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누가 행복하며,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문제는 언젠가 죽을 운명인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끝없는 열띤 논쟁을 불러 일으킨다. 플라톤 학파는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고 이성적이며, 지성적이지만 영혼 자체와 세상을 만든 하나님의 빛에 참여하지 않고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 255. 플로티노스의 빛이론과 요한복음서의 닮은점

플로티노스는 플라톤 사상을 설명하며 플라톤 학파가 세계혼이라고 믿는 혼은 결코 다른 원천에서 복을 이끌어 내는 게 아니라고 한다. 그는 '신은 태양과 같고 세계 혼은 달과 같다. 따라서 플라톤 학파의 이성(지성) 혼은 우주와 영혼을 창조한 하나님 말고는 자기보다 위에 놓지 않으며, 이런 천상의 영들은 우리와 똑같은 근원으로부터 복된 삶과 진리의 빛을 부여받았다'고 말한다. 이 사실은 성서의 요한복음1:6-9의 말씀과도 다르지 않다.

### 256. 천사도 우리들도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는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성전이면서도 다함께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은 각 개인과 조화로운 전체에 친히 오셔서 그 안에 머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위대함은 개인이든 전체이든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크기가 커지거나 나뉘어 작아진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이 그분에게로 향할 때 그분의 제단이 되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제로 모시고 하나님과 만난다.

우리는 피 흘리며(히12:4)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싸울 때, 우리 자신의 피의 희생을 그분께 바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랑으로 불타는 마음을 지니고 그분 앞에 나아가 아주 감미로운 향을 살라 신에게 바친다.

(계속)

## 섬김



### 1. 추자다방

장모님 혼자 사시는 처가가 40분 거리에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한 달에 한두번 씩은 달려가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주로 장모님이 차려 주시고 때로는 맛집에 가서 외식을 합니다. 그런데 나눠주기 좋아하고 사람 좋은 장모님 집에는 늘 동네 사람들로 붐빕니다. 날마다 커피(믹스)를 마시러 마실 오는 동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의 이름을 따 '추자다방'입니다.

저의 고향 마을 우리집은 항상 사람들이 드나드는 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 대문이 마을 공동 우물이랑 모정과 딱 바라보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면 자동으로 우리 집에 뛰어와서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천국에 가신 후로 지금은 집을 아예 마을 노인정으로 사용하라고 빌려줬습니다.

어릴적부터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람들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셔서 집에 늘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사람들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좋았습니다. 청년때 성경공부를 하며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는가?' 하고 생각해 보다가 어렵듯이 제 마음에 '환대(歡待)'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 환대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환대'가 무엇인가? 마이클 앤드류 포드는 "환대란 손님에게 집중하는

능력이다. 환대란 손님이 자신의 영혼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해내는 능력이다. 환대는 다른 사람의 외로움과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외로움을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환대는 사람을 환영하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7556)

## 2. 아브라함과 천사들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마므레는 지중해와 사해 바다 사이에 위치한 헤브론 광야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남부 사막 지역의 한낮 더위는 장정이라도 견디기 어려웠는데, 그런 땀별 속을 걷고 있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오의 땀별 속에서 신기루처럼 천막 출입구 앞에 앉아 있던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다 된 노구의 몸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에게 엎드려 절하며 그들을 맞았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그대로 지나쳐 간다면 곧 탈진하여 사막에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의 상황임에도 발을 씻을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하고 나무 아래서 쉬기를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떡, 버터, 우유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요리하여 손님을 대접한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히13:2)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 사건(창세기18장)은 아브라함이 ‘환대 사역자’였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극진히 접대한 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을 수행하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의 출생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와우! 이런 행운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면...

인도의 테레사 수녀는 일정한 거처 없이 길에서 구걸하여 먹고 지내는 노숙자나 부랑인들을 돌보게 되었는데, 그녀는 그들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가난한 구두 수선공인 마르틴이 추운 겨울날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돌보게 되는데, 알고 보니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였다.’고 합니다. (7557)

## 3. 아브라함의 환대

아브라함은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대접한 것은 대가를 받고 하는 뇌물성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작열하는 사막에서 길을 가는 나그네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공동체에 살면서 나그네들을 섬길 때, 공동체 식구

들과 성경공부를 했습니다. “나그네들을 잘 섬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돈이 많다면 고급스러운 건물을 지어서 오시는 분들을 편히 섬기면 좋을 것 같았었는데, 이미 그런 곳이 있었으니 ‘호텔’입니다. 환대는 ‘호텔 숙박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대는 ‘돈’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연령도 지위도 모르는 생면부지(生面不知)의 나그네들에게 ‘몸을 땅에 굽혀’ 마치 종이 상전에게 하듯 최대의 예우를 갖춰 맞이했습니다. 제가 환대 사역을 해보니 환대받는 나그네들 가운데에는 무례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보다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절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길손들을 알아보지 아니하고 귀빈으로 대우했습니다.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따져가며 차별적으로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환영하고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대접하면서 전혀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최상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접대했습니다. 갈 길 바쁜 길손들을 오래 붙잡아둘 수 없으니 급히 음식을 준비해 대접했습니다.

(7558)

## 4. 환대 사역

작은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책이 좋아요.” 아마도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키보다 훨씬 높은 책장에 수천권의 책이 꽂혀 있어 도서관 같은 아빠의 책방을 놀이터 삼고 자란 영향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적부터 부모님들이 항상 사람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환대(歡待)’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환대 사역을 조금 공부를 해보니 ‘함께 밥을 먹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환대 사역을 하려면 ‘밥을 맛있게 잘하는’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고 어렵듯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천에 있는 한 선교회 사무실에 갔다가 밥을 맛있게 해주는 자매를 발견하곤 그만 6개월 만에 후딱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도원 전통으로 내려온 환대 사역을 공부하고 두어군데 공동체에서 환대 사역을 했는데, 생각과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들이 편안하게 먹고 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대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의 것은 아니고, 뒤에서 사리와 그의 하인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한데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환대 사역은 팀원들 간에 손발이 잘 맞아야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바울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롬12:13)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히13:2)고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유행하는 ‘가정교회’는 미국에서 행해지는 ‘환대 사역’을 변형시킨 것인데, 한국에서는 가정교회를 ‘환대’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 성장’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입니다.(7559)

## 5. 환대 사역의 역사

기독교 전통에서 ‘환대 사역’의 역사는 유구하고 오래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환대 사역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 예수님은 들판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배가 고파 힘들어하자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막 6:37)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당황하여 먹을 것을 주지 못하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5천명을 먹게 하십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이나 미국 기독교에는 ‘나그네 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아담하고 예쁜 집을 지어놓고 ‘쉼’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일정 기간 쉬며 영적 재충전하는 장소와 그런 사람들을 환대하는 사역자가 많습니다. 잭 디어 목사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 보면 ‘환대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교회당’ 중심의 한국 기독교에서는 ‘환대 사역’ 자체를 모르고 또 전혀 기독교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일반인들이 일정 기간 사찰에 들어가 ‘사찰체험’을 하는 템플스테이(Templestay)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피정(避靜)’이라는 이름으로 환대 사역의 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기도원이나 수양관 같은 곳에 단체로 몰려가서 삼겹살 구워 먹고 놀다가 옵니다. 특이하게 이제는 더이상 기도원에는 ‘기도’가 없고 수양관은 ‘수양’이 없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에서 ‘환대 사역’의 명맥이 실낱처럼 겨우겨우 이어지고 있는 곳이 태백에 있는 토레이 신부가 설립한 ‘예수원’ 정도입니다. (7560)

## 6. 예수님의 환대

이 세상 최고의 환대 사역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10:45)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셨지만 이 세상에 오셔서 마치 재벌 아들처럼 대접받다가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목숨까지 남김없이 다 대속물로 내어주신 놀라운 섬김의 삶을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섬긴다'의 헬라어는 디아코네오(diakoneo)입니다. 디아코네오의 다른 의미는 '따뜻하고 정성스런 식탁 시중'입니다. 이 디아코네오에서 파생한 단어가 디아콘(deacon)인데, 교회의 '집사'를 디아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식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옆에서 정성껏 시중을 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집사는 기본적으로 '환대 사역자'입니다. 디아콘의 뜻을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면 '진실로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대접하고 배려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대접을 하면 나중에 저 사람이 어떤 대가를 가져올 거라는 생각은 '환대'가 아닙니다. 환대 사역은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기만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음식점에 가면 최고의 섬김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대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 사람에게만 제공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나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곳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입구에서 쫓겨나지요. 이것은 '환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가짜 환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7562)

## 7. 밥 먹고 가세요

기독교의 본질은 '섬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을 세상에서 얼마나 섬기고 나누다가 왔는지 증명하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마25장) 그런데 섬김받고 대접받은 것밖에 없으며, 섬김과는 완전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내어준다는 것은 미친짓이지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요구하시니 어떡합니까? 해야지요.

섬김은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환대(懃待)사역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합니다. 저와 아내는 지금까지 모든 환대 사역을 '무료'로 해왔습니다. 저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이것도 환대 사역이라고 생각하기에 20만편이 넘는 엄청난 양의 글과 사진과 자료를 모두 무료로 읽고 보고 펴가고 인용하고 링크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환대 사역은 따뜻하고 맛있는 밥 한끼 정성껏 대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맛있는 요리를 대접하기 위해 각종 조리사 자격증도 땀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땀고, 빵을 만들어 나누겠다고 제빵 학원에 다니면서 빵 만드는 것

도 배웠습니다. 아내의 손끝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맛있는 고급 요리들이 튀어나와 방문객들을 황홀하고 즐겁게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마귀가 자꾸 저를 속이네요. 정말 그런지 끝까지 한번 가 볼 작정입니다. (7563) ©최용우

## 8. 완도성실교회

명사십리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완도 신지도에는 송곡성실교회라는 작은 어촌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앞으로 펼쳐지는 붉은 저널노을과 아침 바다 풍경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주변에는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펜션들이 많은 ‘한려해상국립공원’입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로 다른 시골교회처럼 점점 교인들이 줄어드는 전형적인 어촌교회인데, 이 교회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 섬김 환대 사역’입니다. 매년 여름 휴가철에 사역에 지친 목회자 몇 가정을 초청해 2박3일 동안 교회에서 피정(避靜)사역을 합니다. 교회는 초청한 목회자 가족의 모든 경비와 숙식을 제공하고 선정된 목회자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성껏 섬깁니다. 이 사역을 위해 교회에서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지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1년 내내 준비를 합니다.

피정은 특별히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주변을 관광 하면서 편하게 쉬는 것입니다. 여름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한적한 바닷가에서 며칠 푹 쉬고 싶은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저와 아내가 하려고 하는 환대 사역을 완도 바닷가 작은 교회가 이미 하고 있었네요.

영광스럽게도 작년 여름에는 우리 가족을 초청해 주셔서 2박 3일동안 큰 환대와 섬김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왔습니다.

완도송곡성실교회  
(010-3766-8046)



명사십리해수욕장에서



집 앞에 있는 밭 (사진:최용우)

## 아파트와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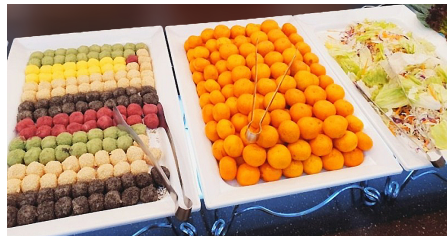
아파트에 사는 어떤 분이 우리가 마당이 있는 시골 주택에 사는 것을 알고 우리 집에 꼭 한번 와보고 싶다면서 자기는 아파트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대한 환상 같은 것이 있다고 하심.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은데 그것도 대부분이 산지이고 사람이 살만한 땅은 더 협소하여 집을 양계장처럼 층층이 위로 쌓아 지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아파트는 우선 살기에 편리하다. 마당에 풀을 뽑을 필요도 없고, 지붕에서 비가 썰 일도 없고 난방을 위해서 장작 펠 일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다 좋은데 인간의 본질이 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흙과 멀리 떨어져 공중에 등실 떠 있는 생태는 결코 좋은 게 아니다. 땅의 기운이 미치는 범위는 나무의 높이, 즉 최대치 5층 높이 정도이다.

아파트 주변에 병원이 유난히 많은 이유는 왜일까?

## 내가 식당을 한다면



오늘은 토요일, 장모님을 섬기는 날이다. 아내와 함께 처가에 가서 장모님을 모시고 나와 읍내에 있는 '자담한식뷔페'에서 점심을 먹었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음식값이 7000원이었는데 1000원씩 야금야금 오르더니 이번에 보니 1인 1만원까지 올랐다.

그래도 음식 퀄리티가 워낙 좋아서 1만원이 싸다고 느껴질 정도다. 본인 건물이 임대료 안 나가고 채소같은 재료를 직접 농사지어 조달하기 때문에 원가를 낮출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입맛 까다로우신 장모님도 만족스러워 하시니 확실히 괜찮은 식당이다.

오래전 처음 왔을 때, 후식으로 먹는 떡을 색깔별로 맞추어 두 줄로 가지런히 담아놓은 것을 보고 첫눈에 마음에 들었다. 일하시는 분들이 음식에 '진심'인 것이 느껴졌다.

가끔 뷔페에 가면 음식이 그릇에 삐뚤빼뚤 담겨있는 것이 늘 불편했었는데, 이 식당에선 모든 음식이 다 오와열을 맞추어 반듯하게 담겨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너무 편하다. 만약 내가 식당을 한다면, 음식이나 그릇 같은 것을 딱!딱! 각을 잡을 것이 뻔하다.

## 넉살 좋은 고양이

한두리대교 아래에서 살아가는 치즈 고양이가 있다. 꼬리 끝이 구부러진 길고양이인데 넉살이 좋다.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막 다가가는 고양이는 아니다. 길가의 의자에 앉아 있으면 슬그머니 다가와 나에게 영역 표시를 하는 것처럼 몸을 비비고 의자 위로 올라와 내 무릎에 턱을 살그머니 올려놓는다.



그러면 머리를 살살 긁어준다. 고양이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동물이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명확히 구별한다고 한다. 그리고 보면 나는 고양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하다.

고양이는 행동이 느긋하고 먼저 고양이에게 손을 내밀어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한다. 고양이가 경계를 풀고 먼저 다가올 때까지 고양이에게 무관심한 척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고양이와 친해지는 비결 아닐까?

## 카리스마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오면서 “어디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가자” 하여 길가에 있는 카페로 들어갔는데, 카페 마당에 큰 개 한 마리가 묶여 있었다.

작은딸 밝은이가 개를 보더니 막 달려가 텃석 머리를 잡고 흔들면서 좋아한다.

개가 마치 고양이처럼 무릎을 꿇더니 밝은이의 손길을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인다.

엄마가 깜짝 놀라 “너, 아직도 아무 개나 텃석텃석 만지냐?”

어릴 적 꼬맹이 때부터 온 동네 개들을 다 부하로 만들어 끌고 다니더니 아직도 개들을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작은딸은 신기하게도 개장수처럼 개들을 무조건 복종시키는 ‘카리스마’가 있다.

엄마는 개에게 물릴까 싶어 “혹시 모르니 아무 개나 만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 어떤 선비?

“전도사님의 삶은 마치 ‘선비’ 같습니 다...” 어떤 분이 생일 축하 덕담을 하면서 내가 마치 조선시대의 선비처럼 산다고 하네.

선비정신은 지조·절의·의리·청렴·정의와 같은 ‘절개’를 지킨다는 남명 조식(南冥 曹植 1501~1572)의 선비론이 있고, 화해·소통·배려·이해·인내와 같은 ‘관용의 정신’을 강조하는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의 선비론이 있다. 나는 어느 쪽인가? 국난이나 독재 권력에 의해 인권이 유린당할 때에는 절개와 의리의 선비정신이, 가치의 다양화와 자기주장이 난무하는 시기엔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관용의 선비정신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오늘날 자본주의의 술에 찌든 지도자가 완장을 차고 좌충우돌하며, 도무지 사람들이 남의 얘기는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에는 어떤 선비정신이 필요한가? 사실은 선비 같다는 말이 칭찬인지 비꼬는 말인지부터가 아리송하다.



## 황금대가리

어떤 마을에 유난히 머리가 무거운 아이가 태어났다. 사람들은 돌대가리라고 놀렸다. 어느 날 아기가 계단에서 구르다가 머리가 터졌는데 금조각이 삐죽 튀어나왔다. 돌대가리가 아니라 황금대가리였던 것이다. 이날부터 부모는 아이를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집안에서 18년을 키워 성인이 되었다.

부모는 그제서야 황금대가리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그동안 키우느라 힘들었으니 머릿속의 황금을 조금만 나누어달라고 한다. 이때부터 이 사람은 자기의 머리가 황금대가리인 것만 믿고 황금을 꺼내어 쓰면서 흥청망청 살다가 마침내 대가리가 텅 비어서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다.

프랑스 프로방스에 <벨>이라는 동화를 쓴 '알퐁스 도데'가 쓴 '황금대가리'라는 단편 이야기다. 사실은 누구 머리든 다 황금대가리이다. 여기서 금은 '시간'을 의미한다.



## 단골 이발

“자기는 머리를 짧게 깎아야 인물이 살아나요. 멋진 인물을 더부룩한 머릿속에 숨겨놓지 마시고 빨리 가서 이발 좀 하고 와요.”

동네 미장원에 갔더니 아주머니 셋이서 머리에 독수리 등지를 하나씩 이고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다. 내가 들어가니 일제히 말을 멈추고 나를 쳐다본다. 아이고... 그냥 집에 가고 싶어... 쓰으나, 아내가 무서워 그냥 꼭 참고 기다렸다가 커트를 하기로 한다.

아주머니 셋이 모이니... 음 ㅍㅍ “나는 이사 온 이후로 여기로만 와, 한 3년 단골인가?” 다른 분이 “나는 5년 단골이여..” 서로 자기가 오래된 단골이라고 한 참 시끄럽다. 입이 무거운 미용사 아주머니가 한마디 하신다. “저 아저씨는 13년 단골이셔유. 미장원 13년 됐는데 13년 동안 여기만 오셔유~”

그래서 알았다. 내가 미장원 13년 단골이구나. ©최용우



□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마5:1)

#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山行

## ▲제609회 비학산281 (일출봉252m) 2023.6.9

### ▲제610회 빈계산(414m)

수통골 빈계산(414m)에 올랐다. 햇볕같은 이야기 사역을 서둘러 끝내놓고 11시에 시내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나가 전철-버스로 수통골에 도착하니 12시이다.

점심을 먹고 산을 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둘러보니 엄청 크고 화려한 '돌짜장' 식당이 눈에 들어왔다. 들어갔더니 '1인' 메뉴는 없다고 한다. 나와서 몇 군데 다른 식당을 돌아보니 딱히 혼자 밥을 먹을 곳이 없다. 음... 혼밥도 힘든 세상이군.

할 수 없이 그냥 산을 탔다. 배가 고파 디지는 줄 알았다. 날씨도 좋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하늘도 맑아 등산하기에는 최고의 날씨이다. 저수지 쪽으로 올라가 무한 반복되는 계단을 오르고 또 올라 정상 인증하고 내려와 한밭대 쪽에 있는 냉면집에 가서 비빔냉면 한 그릇 허겁지겁 먹고 집에 왔다. (2023.6.16.)



### ▲제611회 비학산282

비학산 오를 때마다 정상 테크에서 금병산 방향 영치리 계곡 사진을 계속 찍었다. 그렇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사진을 찍어서 몇 년 동안 쪽 모아 이어서 편집해 보는 것도 재미있다.

영치리 계곡 쪽으로 눈과 밭에서 자라는 곡식들의 풍경이 한가하고 평화롭게 보였었는데, 요즘에는 전혀 조망이 안 나온다.

테크 아래에 있는 나무들이 너무 왕성하게 위로 자라 올라와 정글처럼 우거져서 풍경을 다 가리기 때문이다. 딱히 누가 신경 써서 관리하는 것 같지는 않다. 가을 지나고 낙엽이 다 떨어진 후에나 계곡이 보일 것 같다. 어쨌든 그때까지 '나무 벽' 사진이라도 열심히 찍어야지.

(2023.6.23.) ©최용우





#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 ①대서-비 비 비 비.....

비가 잠시 그치는 것 같더니 다시 내립니다. 장마는 보통 7월 중순에 끝나는데, 지금 내리는 비는 이상기 온 때문에 생긴 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어 앞으로 여름에는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 합니다.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서 어디서든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여기저기 침수 소식이 전해져 오네요. 몸도 무겁고 마음도 가라앉습니다. 뜨끈한 칼국수 한 그릇씩 사 먹고 파이팅 합시다.

여름 휴가가 시작됩니다. 안전한 휴가와 휴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②정녕 망국과 배교의 길을 가려는가? -망대에서 세상보기

하나님, 참 안타깝고 슬픈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래에 대통령 처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를 휘게 하다가 들통난 일이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 지하차도에 들어갔다고 영영 돌아오지 못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나쁜 일을 해서도 아니고, 큰 실수나 무슨 잘못을 해서도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런 처지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이 섬뜩합니다. 게다가 실종자를 찾는 일에 동원된 해병대원에게는 기본적인 구명조끼도 지급하지 않아 생명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갑질을 견디지 못하여 교육 현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이유를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죄파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국가 공권력이 필요할 때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정부는 지난 정부를 탓하거나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며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시민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물난리가 한창일 때 이 나라 대통령은 '이때가 아니면 기회가 없고, 돌아간다고 해서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전쟁놀이에 몰두하였습니다. 대통령 부인은 명품 쇼핑을 즐겼습니다.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일로 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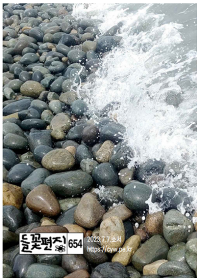
받던 대통령의 장모는 법정 구속되자 ‘억울하다’고 고함을 치며 끌려갔습니다. 막대한 부동산 사익을 얻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판사의 꾸지람에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검찰발 표창장 위조 의심으로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분명한 증거가 있는 대통령 장모에게는 고작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남에게 10원도 피해 준 적 없다’는 대통령의 말이 무색합니다. 어처구니없게도 국민의 혈세를 영수증 한 장 없이 마구 쓰던 부패 카르텔의 정점에 선 자가 사돈남말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비도덕적이고 반역사적이고 무철학과 몰염치의 미신 신봉자를 지도자 만드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한 교회는 재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앙의 순수한 결기가 남아 있고,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그래야 합니다.

오, 주님! 신앙의 본질을 훼손한 이 땅의 교회를 먼저 책망하여 주십시오. 망국의 길을 걷는 이들과 배교에 앞장선 이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부끄럽고 송구합니다.

©Navi Choi (하늘교회 주보<람>)



### ③표지사진 이야기

작년 여름 완도성실교회 목회사역자 환대 섬김 초청으로 온 가족이 여름 휴가를 완도로 다녀왔습니다. 완도 ‘구계등’은 바다로 내려가는 자갈 해안이 마치 아홉 개의 계단처럼 보인다고 해서 구계등입니다. 거친 파도와 모진 세월을 견뎌낸 동글동글한 갯돌들이 도르르 도르르 구르는 노랫소리는 아름답고, 또 우레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 ④도서출판 소식

신간 <들꽃면지14권 작약꽃호> 508쪽 21100원 -7월6일 출간

71권 <들꽃면지13권 도라지꽃호> 512쪽 21300원 -6월12일 출간

70권 <들꽃면지12권 장미꽃호> 504쪽 21000원 -5월10일 출간

69권 <들꽃면지11권 과꽃호> 506쪽 21000원 -4월13일 출간

68권 <들꽃면지10권 천인국꽃호> 504쪽 21000원 -3월13일 출간

67권 <들꽃면지9권 분꽃호> 510쪽 21100원 -2월8일 출간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65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살림 드러내기 -2023.6월 재정결산

2023년 6월(1-31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고종찬 김광현 김광현 김상식 김준경 박근식 박승현 박신혜 박재우 양은희  
양희창 오창근 옥치오 이재익 이진우 임대근 장기갑 정효숙 조정옥 지경희  
최상복 한주환 황성운 황성운 새벽기도 성실교회 실로암교회 안디옥교회 한길중앙교회  
함안중앙교회 (연중,장사교회,박기순)

모두 30분이 1,09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볕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격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볕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버 이  
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  
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  
나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볕같은이야기|<http://cyw.pe.kr>인터넷신문 2023.7.22.일까지 7574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후보자료파일, 전도자료 발행

③도서출판 -그동안 72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④기도회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8곳을 후원합니다.(독거인,문서2,인터넷,북방선교2,선교사,난민)

⑥기독교피정숙터(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  
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작은 휴집 한 채를 빌려 <햇볕같은집>이라는 이름으  
로 피정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기독교목회사역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히 쉬어갈 수 있  
게 하고 싶습니다.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  
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  
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 6일**  
**새로 나온 책**

## 제14권 합본

이 쪽지는  
구원의 비밀과  
마음의 양식을 담아  
사랑으로 전하는  
작은 선물입니다.

〈들꽃편지〉제14권 작약꽃호  
최용우 편집 508쪽 21,100원  
교보문고 퍼플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 햇볕같은이야기(<https://cyw.pe.kr>) 발행인 최용우가 일상 속에서 건져 올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와, 주변 사람들의 글, 그리고 너무 난해하고 지적인 말씀 연구가 가득한 이 시대에, 방금 건져 올린 물고기처럼 팔딱거리는 싱싱한 목상의 말씀, 속 깊은 신앙적인 고민들을 거침없이 털어 놓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편지’입니다.

〈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 선교지입니다. 〈들꽃편지 제14권〉은 제525호(2012.10월)부터 제543호 (2014.4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매월 발행한 19회분을 모았습니다.

이 시기는 〈주보자료〉시리즈 전도주보(12)명품주보(13) 좋은주보(14)를 만들어서 전국의 약 1천여 교회에 제공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온 가족이 대전에 있는 청소년교회인 도토리교회에 출석하면서 섬겼습니다. 이 시기에 열심히 만들어서 매월 전국에 띄웠던 월간〈들꽃편지〉를 모았습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 최용우 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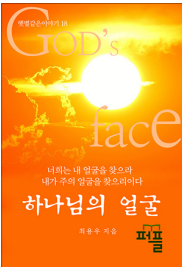
## 인생 최대의 행복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인생 최대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인생을 누리며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참된 신앙생활 비법 전수. 280편의 신앙생활 글 모음 11,800원 316쪽 펴플



## 나도 할 말 있다 나옹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만약 내 생애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나는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기고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처럼 막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285편의 새로운 생활 글 11,900원 318쪽 펴플



##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밖에 모르시는 분,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인생문제는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288편의 깊은 영성 글모음 12,100원 326쪽 펴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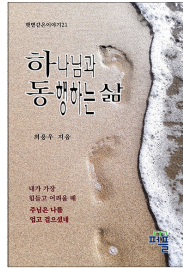
##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인지 고민하면서 일년동안 쓴 글 288편의 예수 동행글 모음 12,200원 328쪽 펴플



## 예수 나의 형통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신앙이 형통하기를 바라십니다. 고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무조건 형통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288편의 예수 형통 글 모음 12,300원 328쪽 펴플



##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외로워 눈물 흘릴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그때 주님은 나를 업고 고난의 강을 건너고 계셨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네. 288편의 하나님과 동행 글 모음 14,300원 320쪽 펴플

❁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샬롬!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숨터(피점) <http://cyw.co.kr> \*햇별같은이야기 <https://cyw.pe.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 138-02-048495 하나은행 117-891254-32307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속티2길 5-7번지 들꽃편지 햇별같은이야기

들꽃편지 제654호 \*발행.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